■ 실속 재테크

직장인 급여통장 업그레이드

주식·펀드 투자땐 'CMA' 유리

대출 계획 있다면 '은행계좌' 이용

다음달부터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계된 신용카드가 출시돼 CMA계좌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CMA를 통한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간에 월급통장 유치를 위한 전쟁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월급통장을 개설할 때 각자 거래 유형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식·채권·펀드 등 투자상품을 많이 이용한다면 CMA가, 평소 은행 거래가 잦거나 대출받을 계획이 있다면 은행 급여통장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금리는 CMA가 유리=증권사 CMA의 가장 큰 매력은 금리다. 은행 급여통장도 제법 높은 금리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갖가지 조건이 따라 붙는다.

실제 SC제일은행 두드림통장은 30일 이전 출금분에 대해서는 연 0.1% 금리가 적용될 뿐이다. 반면 대부분 CMA는 예치 기간과 금액에 상관없이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동양종금증권 CMA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연 2.3% 금리를 제공하며 1년 이상 예치시 최고 연 3.3% 금리를 제공한다. 다음달부터는 CMA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제휴사인 현대·삼성·롯데카드와 함께 5종류의 W-CMA 카드를 출시, 할인·적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CMA에 체크카드 기능을 도입했다. '삼성CMA플러스'는 RP형의 경우 단 하루만 맡겨도 연 2.5%, 1년 약정을 맺으면 연 2.7% 금리를 제공한다. 3개월 이상 급여이체시 공모주 청약 한도를 두 배까지 늘려주는 혜택도 준다.

대우증권 '랩(Wrap)형 CMA'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금액에 상관없이 연 2.4% 금리를 제공하며 'RP형 CMA'는 투자 기간에 따라 최고 연 2.8% 금리를 제공한다. 증권사 CMA 중 유일하게 아파트 관리비 자동 납부가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향후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은행이 유리하다. 대출 금리는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은행이 거래 실적 중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급여이체 여부이기 때문이다.

광주은행은 급여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3개월동안 평균 30만원이상의 잔액을 유지할 경우 자동화기기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약정이자보다 0.2%포인트 높은 금리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국민은행의 'KB스타트통장'은 평균잔액 100만원 '이하'면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역발상 통장이다. KB카드 결제 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납부 실적이 있으면 다음달 전자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SC제일은행 '두드림 통장'은 입금 금액과 상관없이 첫 예금 후 31일이 지나면 4.1%의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

은행 급여통장과 증권사 CMA 비교

구분	급여계좌	금리 및 혜택
은행	광주은행 급여우대통장	CD기 전자금융 등 각종 수수료 면제, 0.2% 금리 우대
	국민은행 KB스타트통장	100만원까지 4%, 각종 수수료 면제
	우리은행 AMA플러스통장	AMA플러스 급여통장 : 2.2~2.5% 급여이체 실적 1개월 이상 신용대출 가능
	SC제일은행 두드림통장	31일 이상 예치시 4.1%, 전국 모든 CD기 출금 수수료 면제
증권사	동양종금증권 CMA	2.3~3.3%, 5천만원 예금자 보호, 각종 수수료 면제
	삼성증권 CMA 플러스	2.5~2.7% , 공모주 청약 한도 2배
	대우증권 CMA	2.4~2.8%,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가능

은행들 잇속만 챙기나

대출금리·수수료 올리고 대출 대가 '꺾기영업' 여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은행들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잇속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은행은 대출을 대가로 예금 가입을 강요하는 등 '꺾기' 영업을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또 대출 상담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해 관련 은행들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특히 외국계 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을 외면, 오로지 수익 극대화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18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를 최고 연 0.30%포인트 인상했다.

주택담보대출인 '굿뱅크 장기 모기지론'과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적용금리의 변동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0.05~0.30%포인트 올렸다. '뉴에이스 장기담보대출'과 '에이스 장기담보대출'의 금리는 0.0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째 2.41%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SC제일은행은 그간 별도로 받지 않았던 타 은행에서 자기 은행으로 송금하는 타점발생거래송금 외화수수료를 지난달부터 1만 원씩 받고 있다.

씨티은행은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 수수료를 20달러에서 25달러로 올렸다.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일부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붙은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 가입을 강요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강도 높은 제재를 할 방침이다.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HSBC, 외환은행 등은 지난 17일 대출상담사 관리 소홀로 경찰에 입건됐다.

한편 외국계 은행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을 꺼리고 있다.

지난 4월 말 현재 11개 은행이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외환·기업은행 등이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이지만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HSBC 등은 출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光銀 '빨간 넥타이맨' 많은 까닭은?

"불황 극복하자" 다짐

송기진행장 취임후부터

트레이드 마크 자리잡아

광주은행 본부 부서장급들이 최근 본점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대다수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직원들 사이에 빨간 넥타이 열풍이 불고 있다. 본점은 물론 107개 지점과 25개 출장소에도 빨간색부터 주황색, 연지색 등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맨 '광은(光銀) 맨'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빨간넥타이가 유행을 넘어 사풍(社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단아한 제복차림의 여직원들과 달리 이렇다할 유니폼이 없는 남자 직원들 사이에 빨간 넥타이가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6월 송기진 은행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우리은행 시절부터 '영업통'으로 정평이 난 송 행장은 매주 경영협의회와 매달 월례회의 때면 어김없이 "성공하려면 전략적으로 입으라"는 주문을 빠트리지 않았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밝게 차려 입어라. 특히 넥타이는 첫 인상인만큼 열정과 순수, 청렴을 보여주는 빨간 넥타이가 좋다"고 권장했다.

송 행장 본인도 1주일에 3~4일, 어떤 때는 1주일 내내 빨간색 넥타이만 고집했다. 행장의 '빨간 넥타이론'은 본부장급 고위 간부와 100여명의 지점장에게 들불 번지듯 확산됐고, 지금은 평사원들도 선호하는 하나의 문화로 뿌리내렸다.

광주은행 심볼이 태양과 별을 도형화한 빨간색인 것도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빨간 넥타이를 받아들이는데 일조를 했다.

사회공헌사무국 김준원 국장은 "빨간 넥타이를 매면 신입사원이 된 양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초심(初心)도 생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협, 7,000억 한도 후순위채권 판매

농협중앙회는 21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총 7천억원 한도로 후순위채권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후순위채권은 6년 만기로 3개월 마다 이자를 받는 이표채와 3개월 복리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는 복리채 등 2가지이다. 이자는 5.90%로 확정 금리이다.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보다 변제순위는 후순위이나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100만 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다.

光銀, 코스피지수 연계 '더블찬스 예금' 출시

광주은행은 KOSPI200지수와 연계한 '더블찬스 정기예금 37호'를 출시하고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간 판매한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KOSPI200지수에 따라 최저 연 0%(원금보장)~17.1%의 이자를 지급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